언해불전 번역·아카이브 성과 '한자리에'

동국대 한국문학硏, 'K불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학술대회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언해불전 9종 22권의 신번역
물성 데이터 등 연구 확대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5세기 언해불전 번역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7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 '한글 너머 온(On), 불을 켜다'를 오는 8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일반 대중 등 200여 명이 함께한다.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15세기 조선 전기에 간행된 〈석보상절〉을 비롯한 언해불서 18종 88권을 대상으로 그 안에 담긴 불교사상과 언어, 민중문화, 인쇄·제지 기술, 사회제도와 물질문화에 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연구소는 시맨틱 기술을 활용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신번역 3종 7권과 동일 분량의 서지 조사·촬영을 완료하고 '시맨틱 맵 작성'과 'AI-OCR', '미디어아트'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불교한글문화유산 9종 22권의 신번역과 9종 23권의 서지 조사·정밀 촬영을 수행하고 종이의 물성 데이터, 인쇄 방식에 따른 AI-OCR의 인식 차이, 인공지능 기반 지식정보 아카이브의 구현 가능성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김일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장은 "올해 사업 성과의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정보를 서로 연결해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성과가 교육, 창작, 전시, 영상, 미디어아트와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전했다.

2년 차 성과를 발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하정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사업단 총괄팀장의 사업 성과 전반 보고와 김 연구소장의 3년 차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제2부는 '불교한글문화유산 콘텐츠의 구축과 구현'을 주제로 △최애리 사업단 디지털 큐레이션팀장의 '15세기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지류(紙類) 물성 데이터 구축과 활용' △김소정 나라지식정보 인문인공지능연구소장의 '목판과 활자, AI는 어떻게 다르게 읽는가—〈월인석보〉·〈석보상절〉 AI-OCR 비교를 통해 본 15세기 인쇄기술과 한글문화콘텐츠' △서소리 바키타랩 CTO의 'AI 활용 기반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현'이 발표된다.

제3부에서는 남권희 전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일기 중앙대 명예교수,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순석 전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김상일 동국대 명예교수, 김성주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이병기 한림대 인문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이어 "연구소는 앞으로도 학술적 엄밀성과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3년 차에는 '불교한글문화유산 활용 공모전' 등을 추진해 시민과 학생, 연구자와 창작자가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등사 명부신앙 면면을 만나다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불교미술Ⅱ' 기획전

2027년 3월 7일까지 전시
보물 '명경대' 등 성보 선봬


강화 전등사 약사전 현왕도.
사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에 전해지는 명부신앙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7월 16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강화의 불교미술Ⅱ: 전등사-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冥府世界)'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천년고찰 전등사에 전해지는 명부 신앙 관련 불교 유산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명부세계에 대한 믿음이 죽음 이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고자 했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명부를 향한 믿음'에서는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부 '명부로 들어서다'에서는 죽음 이후 명부세계 시왕(十王)의 심판을 다루며, 3부 '살아서 준비하는 명부'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공덕을 쌓아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자 했던 '생전예수재'를 소개한다.

전시에는 발원문 작성, 명경대 거울 체험, 〈예수천왕통의〉에 기록된 전생의 빚 확인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도 마련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전시는 전등사 불교 유산을 통해 옛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상상하고, 살아 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자리"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침묵의 영토에서 기르는 평온

⑤⓪ 묵언수행(默言修行)

默 言 修 行

우리는 늘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날의 소음은 단지 입으로 쏟아내는 말에만 머물지 않는다. 쉴 새 없는 정보 탐닉과 SNS 대화, 짧은 영상에 쉼 없이 빠져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흩뜨리는 소음이며, 어쩌면 오늘날의 '현대판 구업(口業)'인지도 모른다. 그 소음 속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점점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간다. 이제는 바깥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맑은 마음을 회복해 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묵언수행(默言修行)'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선방에서는 안거(安居)에 들어가기 전, 묵언 정진을 할 수행자를 미리 신청받는다. 대중이 그가 묵언 수행자임을 미리 알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서로를 배려하며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묵언은 밖으로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거두고, 화두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다.

가톨릭 영성가 토마스 머튼(1915~1968)도 저서에서 침묵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려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입을 열어 나의 방어를 시작할 때 침묵은 깨진다. 내 명예와 억울함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침묵이 시작된다." 그의 말처럼 침묵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에고를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참된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하는 깊은 기도의 길이다.

명나라 문인 진계유(1558~1639)도 〈소창유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운이 들떴음을 알았고, 침묵을 지키고 나니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손에서 키보드를 내려놓고, 눈에서 모니터를 거두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채 잠시 침묵해 보라. 그러면 이 말의 뜻을 금세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바깥의 소음을 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울림과 마주하게 된다.

고려의 고승 원감 국사 충지(1226~1292)는 이러한 경지를 한 편의 선시로 노래했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바로 대답하고/ 네가 내게 물으면 내가 바로 대답했지/ 이 사이에 불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껏 실 한끝도 들어갈 틈 없었나니.

시 속의 '나'와 '너'는 누구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참된 '나'다. 번잡한 소음과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방에 홀로 앉을 때, 비로소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곧 불이(不二)를 깨닫게 된다. 스스로를 부르고 스스로에게 고요히 응답하는 시간. 그 침묵은 마음에는 잔잔한 평온을 채우고, 삶에는 향기로운 덕을 길러 준다. 마침내 우리를 깊고 고요한 곳으로 이끈다. 묵언이 주는 수행의 기쁨이다. 〈회순 불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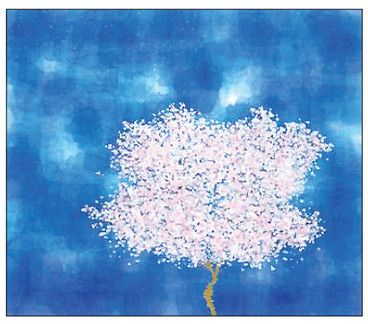
향기 만난 선명상

서울 충정사, 성영록 개인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향기로 숨 쉬는 시간' 개최

서울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충정 갤러리&스튜디오에서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 쉬는 시간'을 개최한다.

'향기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성영록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인 '봄날' 시리즈와 '은매도' 시리즈 등 1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충정사가 운영하는 선명상 치유 프로그램과 성영록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2층 법당에서 빈백 소파에 누워 선명상을 체험하고, 1층 갤러리에서는 작품 감상과 함께 향기를 맡으며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직접 조향에 참여한 향수를 시향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성영록 작가의 작품 '그 사람은 봄날'.

덕운 스님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충정사를 찾는 불자는 물론 선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도 감각을 깨우는 새로운 치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동참금 : 369만원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9월28일 출발~10월13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엔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